

AGENDA

2019년 알토 하우스

경리단길에 위치한 갤러리 ERD에서 《One Chair is Enough》 전시의 일환으로 오유미 작가의 오드미 Oddme 세라믹 시리즈를 전시한다. 갤러리 ERD의 지하 공간은 테이블과 의자, 파티션, 조명 등 1920~70년대 제작된 알바 알토의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들로 '알토 하우스'처럼 꾸며졌다. 여기에 트롬리와 테이블 그리고 바닥에 놓인 오유미 작가의 세라믹 제품은 알바 알토의 가구들과 잘 어울렸고, 벽에 걸린 파란색과 더불어 청량함을 선사했다. 알바 알토에서 영감을 얻은 드로잉이 그려진 오벌 플레이트를 비롯해 꽃병과 화분, 식기류 등 생활에서 아름답게 쓰일 오드미 세라믹 시리즈는 전시 기간 동안 구입도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web www.gallerierd.com editor 신진수 photographer 이현실





스툴 60을 재해석한 14명의 작가들

갤러리 이알디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건축 디자이너이자 산업디자이너인 알바 알토의 '스툴 60'을 주제로 한 <One Chair is Enough>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275c, 권철화, 김건주, 김재훈, 김참새, 김총재, 나난, 남궁호, 주재범, 스팍스 에디션, 오유미, 이규태, 이광호, 티보에렘으로, 총 14명의 작가가 표현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진행 방식이 꽤나 독특하고 흥미롭다. 갤러리 이알디는 14명의 작가들에게 스톨 60을 택배로 전달했고, 모든 작가들은 스톨 60의 인증 사진을 찍고 올려 진행 방식을 알리곤 했다. <One Chair is Enough>전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과 기능주의 가구 디자인의 진수를 보여주는 알바 알토의 스톨 60을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전시가 아닐까 싶다.

tel 02-749-0419 editor 원지은 photographer 이현실